

# 存現文 動詞에 관한 考察

李 滄 鎬  
(成大 中文科 講師)

## 〈 目 次 〉

I. 序 言	動詞와의 關係
II. 存現文의 一般의 特徵	1. 時態標識와 動詞와의 關係
1. 存現文의 定義와 種類	2. 趨向標識와 動詞와의 關係
2. 存現文의 形式과 範疇	V. 存現文 動詞의 分類 및 特徵
III. 處所(時間)句 및 名詞句와 動詞와의 關係	1. 存現文 動詞의 種類
1. 處所(時間)句와 動詞와의 關係	2. 存現文 動詞의 分類
2. 名詞句와 動詞와의 關係	3. 存現文 動詞의 特徵
IV. 時態標識·趨向標識와	VI. 結 語
	〈 參考文獻 〉

## I. 序 言

存現文은 存在나 隱現의 生생한 묘사를 할때 쓰이는 것으로 중국어에서 매우 특색있는 문장이다. 존현문은 일반동사술어문과는 달리 그 형식이 특수하며, 語義도 생동감이 있고 묘사적이다.

다음 문장이 나타내는 뜻을 중국어로 표현해보자.

- (1) 탁자위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다.
- (2) 집안에 한아이가 울고 있다.

예문 (1)-(2)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 (3) 桌子上放着一本書.
- (4)\* 家裏哭着一個孩子.
- (5) 家裏有一個孩子哭着.

예문 (1)에 대해서 (3)이 성립하고, (2)에 대해서 (5)가 성립하는데, 오히려 (3)과 문형이 같은 (4)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장형식을 바꾸지 않고, 예문 (4)의 동사를 다른 동사로 대체해 보자.

- (6) 家裏住着一個孩子.

문형이 같은 예문 (4)와 (6)에서 (6)만이 성립된다는 것은, 동사의 선택에 따라 문장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존현문의 특성은 문장구조의 특이성과 함께 동사의 자질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존현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존현문에서 文頭에 위치하는 處所(時間)句 및 文末에 위치하는 名詞句의 특징과 동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태 표지 및 추향표지와 동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처소구 및 명사구와 동사와의 관계에서 귀납된 설명을 근거로, 동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시태, 추향표지의 부가등을 통해, 존현문동사의 분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존현문 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문장구조상의 주빈어 문제는 토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는 가능한 우리문법으로 번역된 것이고 오해가 생길수 있는 용어는 《實用現代漢語語法》(劉月華等,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3)의 原用語를 사용하거나 번역된 우리용어 옆에 附記하였다.

설명 편의 위해 文頭에 위치하는 句(短語 또는 詞組)를 處所(時間)句<sup>1)</sup>로, 文中의 술어동사구를 動詞句로 文末에 위치하는 句를 名詞句로 부르기로 한다.<sup>2)</sup>

1) 存在文의 문두에는 時間句가 올 수 없지만, 隱現文의 문두에는 시간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處所(時間)句의 (時間)句는 은현문에만 해당한다.

(3.1.1)의 處所(時間)句의 構成 참조.

## II. 存現文의 一般的 特徵

### 1. 存現文의 定義와 種類

#### 1) 存現文의 定義

存現文은 어떤 장소에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이 存在하거나, 出現 혹은 消失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예문을 보자.

(7) 前面走來一個人. (出現)

(8) 前面走着一個人. (存在)

(9) 前面走過去一個人. (消失)

예문 (7)-(9)은 실체(entity)를 나타내는 “一個人”이 “前面”이란 장소에서 存在하거나, 出現 혹은 消失하는 함을 나타낸다.

#### 2) 存現文의 種類

存現文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존재를 표시하는 存在文과 出現 혹은 消失을 표시하는 隱現文<sup>3)</su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存在文의 種類

존재를 나타내는 형식에는 “有”字文, “在”字文이 있는데, “有”, “在”를 存在動詞라 하고, 이러한 동사는 동사의 의미자체가 현상 또는 상태로 파악되며, 문장에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문을 보자.

2) 문두에 위치하는 句와 문말에 위치하는 句는 모두 名詞性成分으로 名詞句라고 불려야하나, 본고는 존현문의 형식에 근거하여, 문두의 句는 處所(時間)句, 문말의 句는 名詞句로 구별하여 부른다.

3) “隱現文”이란 용어는 宋玉柱의 〈隱現句〉(《語言研究論叢》, 제4집 南開大學出版社, 1987)와 李臨定的 《現代漢語句型》十一. 隱現句型(商務印書館, 1986)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따랐다.

- (10) 桌子上有一本書. (存在) (“有”字文)  
 (11) 書在桌子上. (存在) (“在”字文)

예문 (10)-(11)의 문두에 위치하는 處所句는 대화중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예문 (10)은 “桌子上”이라는 곳에 “一本書”가 有無<sup>4)</sup>의 관점에서 단순존재를 표시하고 있다. 예문 (11)는 “書”가 “桌子上”에 단순히 존재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존재와 비존재의 관점에서 구별되는 존재이며, 일반동사서술문에 해당한다.

또 繫詞 “是”를 사용하여 판단작용의에 강한 존재를 나타내는 “是”자문이 있다.<sup>5)</sup> 예문을 보자.

- (12) 桌子上是一本書. (存在) (“是”字文)

위에서 설명한 문형들은 동사자체가 존재를 표시하는 자질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동사자체가 존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장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 (13) 桌子上放着一本書. (存在)  
 (14) 牆上貼着一張地圖. (存在)

예문 (13)-(14)은 “放”, “貼”라는 동사자체는 존재를 표시하지 않지만 전

4) 鄧福南은 主·賓語문제를 토론하면서, 『중국어의 “有”는 소유(有無)를 표시하는 것과 존재를 표시하는 것의 두가지 개념의 구분이 쉽지않다』라고 하면서 『“有”를 소유를 표시하는 것과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서는 안되며, 「有」, 「無」는 바로 「있다」, 「없다」를 표시하는 것으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소유라는 개념은 존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본다. 즉 소유는 곧 존재의 의미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어 어법의 제문제(三)> 鄧福南著, 宋龍準譯 《中國語文學》 제6집, 嶺南中國語文學會, 1983. 6

5) “是”가 나타내는 존재와 “有”가 표시하는 존재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是”는 어떤 물건이 어떤 공간을 점거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어떤 공간이 어떤 물건에 의하여 점거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有”는 어떤 공간에 어떤 물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實用現代漢語語法》劉月華等 pp. 429-430참조

체문장은 “桌子上”에 “一本書”가, “牆上”에 “一張地圖”가 “放”과 “坐”라는 동작의 완료후에 지속되는 상태적인 존재를 설명한다. 즉 존재동사나 繫詞 “是”를 사용하지 않고도 존재의 표현은 가능하다. 오히려 존재의 양태를 더욱 생동감있게 표현한다.

이상과 같이 존재문의 종류는 “有”자문, “在”자문, “是”자문과 같이 단순 존재만을 표시하는 것<sup>6)</sup>과 존재의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 있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존재문은 예문 (13)-(14)과 같은 존재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며, 비교적 구별하기 쉬운 단순존재문은 토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단지 비교시 제시하기로 한다.

## ② 隱現文의 種類

은현문은 다시 出現文과 消失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문을 보자.

(15) 屋子裏走出來一個人。 (出現)

(16) 屋子裏走出去一個人。 (消失)

예문 (15)-(16)은 동사구 뒤에 위치한 “一個人”라는 실체가 “屋子裏”라는 장소에 각각 출현, 소실함을 나타내며,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은현문은 趨向標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소실문은 존재문과 출현문에 비해 매우 적게 쓰인다.<sup>7)</sup>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본고는 동사에 관한 연구에 국한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도 사용빈도가 낮은 소실문

6) 이를 본고에서는 이를 단순존재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7) 이점에 대해 宋玉柱는 『존재문과 출현문은 대량이나 소실문은 그것과 서로 비교하면 오히려 대단히 적다. 우리의 재료에서, 소실문은 단지 은현문의 6%를 점유한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張志公선생의 《漢語語法常識》중, 존현문은 모두 40개 예문을 들고 있는데, 그중 소실문은 단지 3개이며, 또한 모두 작자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언어중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 매우 적게 보인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현상을 어찌 설명할 지 일시에 답안을 찾아낼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隱現句〉, 宋玉柱, 《語言研究論叢》제4집 南開大學出版社 1987년 p. 205

## ② 狀態動詞

존현문에 쓰이는 상태동사는 동작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존재를 나타낸다<sup>24</sup>.

상태동사 : 死, 壞, 漂, 飄, 長, 生長, 流動 등

예문을 보자.

(99) 地上死着一隻鷄.

(100) 桌子上壞着一架收音機.

예문(99)-(100)은 상태동사는 동작이 정태적이기 때문에, 「죽어 있다」, 「망가져 있다」라는 동작 결과에 의한 상태적 존재를 표시한다.<sup>25</sup> 그럼 예문(99)-(100)의 시태표지를 “了”으로 대체해 보자.

(101) 地上死了一隻鷄.

(102) 桌子上壞了一架收音機.

예문(101)-(102)역시 상태존재를 표시한다. 이는 동작이 순간성이거나 지속성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사자질이 정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태동사 + “了”는 순간동사(“坐”등)에 “着”가 나타내는 의미와 비슷하다. 양자는 모두 동작후 파악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점은 상태동사 + “了”는 동사 자체가 표시하는 동작의 상태적 변화이고, 순간동사 + “了”는 동작완료후 나타나는 상태적 변화를 표시한다.

## 2. 存現文 動詞의 分類

존현문동사는 크게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지속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명사구와 동사와의 관계 및 존현문동사그리고

24) 상태동사가 쓰인 존현문은 동사의 자질상 존재만을 나타내며, 은현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地上死出一隻鷄”, “\*桌子上壞過去一架收音機”)

25) 특히 “死”동사는 존재뿐 아니라, 소실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는 동작 자체가 상태적으로 지속되므로, 동작의 완료와 완료후의 존재상태를 거의 구별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실과 존재의 두가지 의미표시가 가능하다.

시대·추향표지의 부가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사구의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가 행위자나, 대상자나, 결과자임에 따라 동사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사, 타동사가 쓰임에 따라,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가 시사일 수있고 수사일 수도 있으며, 또 수사는 동작의 대상자와 동작의 결과자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분류는 시대표지나 추향표지를 동시에 부가해 봄으로써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정태와 동태로 동사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동사는 순간성과 지속성의 의미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 1) 행위자·대상자·결과자를 표시하는 동사

존현문의 동사는 동작완료후의 실제의 존재상태나 동작지속를 표시한다. 예문을 보자.

- |                   |            |
|-------------------|------------|
| (103) 臺上坐着一個孩子.   | (상태) (행위자) |
| (104) 桌子上擺着一對花瓶.  | (상태) (대상자) |
| (105) 枕頭套上繡着一朵梅花. | (상태) (결과자) |
| (106) 屋裏飛着一隻鳥.    | (지속) (행위자) |
| (107) 爐上熱着飯.      | (지속) (대상자) |
| (108) 臉上抓了幾道口子.   | (지속) (결과자) |

예문 (103)-(105)의 동사는 모두 상태를 표시하고, 예문 (106)-(108)의 동사는 모두 동작의 지속을 표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동사구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가 예문 (103)와 (106)는 행위자를, 예문 (104)과 (107)은 대상자를, 예문 (105)와 (108)은 동작의 결과자를 각각 표시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존현문동사를 분류하여 보자.

- ① 행위자를 후치시키는 동사 : 상태 : 坐, 藏, 停, 蹲, 跪동  
지속 : 飛, 走, 爬, 等, 跑동

26) 상태동사는 동사자체가 정태성을 가지므로 존현문동사의 분류 기준에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본고는 동작동사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존현문동사는 행위자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고, 동사뒤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그 동작을 일으키는 주체로 파악할 수 있다. 예문을 보자.

(109) 門口蹲着一個孩子. (상태)

(110) 馬路上跑着一個孩子. (지속)

예문 (109)-(110)에서 “蹲”과 “跑”는 동작동사이며, 자동사이다. 또한 명사구가 행위의 주체로 인식된다. 예문 (109)-(110)의 시태조사를 완료태 “了”로 대체해보자.

(111) 門口蹲了一個孩子. (상태)

(112)\* 馬路上跑了一個孩子. (지속)

예문 (111)은 동사가 순간적인 의미를 표시하고, 행위자는 동작은 일단 완료되며, “了”를 부가할 수 있다. 예문 (112)은 동사가 지속적인 의미를 표시하고, 행위자의 동작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는 “了”를 부가할 수 없다.

② 대상자를 후치시키는 동사 : 상태 : 放, 擲, 堆, 種, 插, 立, 埋, 敵 등

지속 : 熱, 曬, 養, 蒸, 燙 등

존현문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동작을 받아 이동혹은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객체를 표시할 수 있다. 예문을 보자.

(113) 地上扔着很多碎紙. (상태)

(114) 場上曬着很多麥子. (지속)

예문 (113)-(114)은 행위자가 대상물에 대해 동작행위를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때 처소구는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받거나 상태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물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표시한다. 예문 (113)-(114)의 시태표지를 완료태 “了”로 대체해보자.



- (115) 地上扔了很多碎紙. (상태)  
 (116) 場上曬了很多麥子. (지속)

예문 (115)의 동사구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 대상자는 동작의 완료 후에 상태를 표시하므로 “了”를 부가할 수 있다. 예문(116)는 동사는 비록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지속되는 동작은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 대상자의 한정을 받게되고, 이때 “了”의 부가로 그 대상물에 동작이 가해졌음을 표시하게 된다.

또 대상자를 후치시키는 동사는 대상자가 표시하는 의미에 따라 도구를 표시하는것(包, 沖, 蓋, 塞, 攔 등)과 부착을 표시하는 것(穿, 背, 帶, 戴, 拿, 擔, 舉, 挑 등)으로 細分해 볼 수 있다. 예문을 보자.

- (117) 行李外邊包着一層布. (도구)  
 (118) 手裏拿着一把扇子. (부착)

③ 결과자를 후치시키는 동사 : 상태 : 寫, 抄, 畫, 印, 繡, 蓋 등  
 지속 : 掏, 穿, 黏, 磨, 등

존현문동사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행위자 동작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동사가 표시하는 동작 이후에 존재하게 되는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문을 보자.

- (119) 本子上寫着兩個字. (존재)  
 (120) 牆上掏了一個洞. (지속)

예문 (119)-(120)의 동사구는 동작행위가 있는 후에 생겨난 존재상태를 표시한다. 예문 (119)은 “了”로, 예문 (120)은 “着”으로 시태표지를 대체해 보자.

- (121) 本子上寫了兩個字. (존재)  
 (122)\* 牆上掏着一個洞. (지속)

예문 (121)은 완료태 “了”로 대체해도 상태를 표시한다. 이는 동작의 완

료성과 완료태 “了”가 잘 어울려 때문이다. 예문 (122)이 비문인 것은 지속성을 표시하는 동사에 지속태 “着”를 부가하면 동사의 지속을 표시하지 동작 후의 결과 상태의 지속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사는 비록 지속의 의미를 표시하지만, 뒤에 위치하는 명사구는 동작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동사는 완료성을 의미하는 “了”와 결합하여, 동작 결과후의 상태를 표시한다.

위에서 열거한 예문은 모두 존재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은현문의 경우도 시태표지를 추향표지로 대체하여 출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존재문에서 설명한 특징을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sup>27)</sup>

- |                  |      |       |      |
|------------------|------|-------|------|
| (123) 門口蹲下一個孩子.  | (출현) | (행위자) | (상태) |
| (124) 馬路上跑出一個孩子. | (출현) | (행위자) | (지속) |
| (125) 地上扔下很多碎紙.  | (출현) | (대상자) | (상태) |
| (126) 場上曬出很多麥子.  | (출현) | (대상자) | (지속) |
| (127) 本子上寫下兩個字.  | (출현) | (결과자) | (상태) |
| (128) 牆上掏出一個洞.   | (출현) | (결과자) | (지속) |

## 2) 정태와 동태를 표시하는 동사<sup>28)</sup>

### ① 정태를 표시하는 동사

존현문에서 정태를 표시하는 동사는 순간성의 의미를 나타내며, 동작완료 후에 존재상태를 표시하고, 존재문에서만 쓰인다. 예문을 보자.

- |                    |      |
|--------------------|------|
| (129) 湖邊石凳上坐着一對男女. | (존재) |
| (130) 大門兩側貼着幾張布告.  | (존재) |

### ② 동태를 표시하는 동사

먼저 존재문에서 동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동작의 지속상태를 표시한다. 예문을 보자.

27)소실을 의미하는 문장은 4장 2절 동태를 표시하는 동사 참조.

28)동사의 예는 존현문의 종류와 분류에서 자세히 열거하였다.

- (131) 屋子裏飛着一隻蜜蜂. (존재)  
 (132) 院中滾着個小火柴盒. (존재)

은현문은 단지 동태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정태를 표시하는 지속동사에 추향표지를 부가하여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표시한다. 예문을 보자.

- (133) 屋子裏飛進來一隻蜜蜂. (출현)  
 (134) 屋子裏飛出去一隻蜜蜂. (소실)  
 (135) 院中滾來一個小火柴盒. (출현)  
 (136) 院中滾過去一個小火柴盒. (소실)

정태를 표시하는 순간동사에 추향표지를 부가해보자.

- (137) 湖邊石凳上坐下一對男女. (출현)  
 (138) 大門兩側貼出幾張布告. (출현)  
 (139)\* 湖邊石凳坐過去一對男女. (소실)  
 (140)\* 大門兩側貼過去幾張布告. (소실)

예문 (137)-(138)은 출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39)-(140)은 소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어 비문이 된다. 이는 동사뒤에 위치하는 명사구가 이동성이 없어 소실을 표시하는 추향표지를 부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9)</sup>

### 3. 存現文 動詞의 特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현문동사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순간성 자질을 갖는 동사(“坐”類, “放”類, “寫”類)는, 존재문에서 시태표지“着”와 “了”의 부가로 동작이 [+완료성] [+결과성]의 자질을 갖고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정태적인 상태를 표시한다.

29) 3장 2절 추향표지와 동사와의 관계 참조

또 은현문에서는 추향표지를 부가하여, 동작이 [+완료성] [+결과성]을 갖고 출현의 의미만을 표시한다.

둘째, 지속성 자질을 갖는 동사중, 존재문에서는 “飛”類는 “着”의 부가로 동작이 [-완료성] [-결과성]을, “熱”類는 “着”와 “了”의 부가로 [-완료성] [-결과성]을, “도”類는 “了”의 부가로 [-완료성] [+결과성]의 자질을 갖고 동작이 지속되는 동태적인 상태를 표시한다.

또 은현문에서는 추향표지를 부가하여, 동작이 [+완료성] [+결과성]의 자질을 갖고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표시한다.

존현문에서 쓰일 수 없는 동사는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사상, 감정, 언어를 표시하는 동사(看, 聽, 想, 董, 知道, 恨, 愛, 哭, 笑등)이 있고, 급여와 취득을 표시하는 동사(送, 還, 交, 借, 欠, 偷, 買등)등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이 존현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알 수 있다.

## VI. 結 語

이상과 같이 존현문은 형식과 표시하는 뜻이 특수한데, 이는 동사의 자질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논술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현문동사는 문두 처소(시간)구는 구조상<sup>30</sup> 별로 긴밀하지는 않지만 담화의 주체로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 처소(시간)구 앞에 개사의 출현 여부에 따라, 존재문(일부 은현문에서 쓰인 상태동사 포함)에서는 무향성을, 은현문에서는 유향성을 가진다.

둘째, 존현문의 문말 명사구는 비한정성을 가지며, 동사에 대해 施事와 受事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순간동사에 시태표지 “着”와 “了”를 부가함으로써, 존현문동사는 [+완료성] [+결과성]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존재문에서는 정태적인 존재상태를 표시하고, 은현문에서는 동태적인 출현의 의미를 표시한다.

넷째, 지속동사에 시태표지 “着”를 부가함으로써, 존현문동사는 [-완료성] [-결과성]의 자질을 갖고, 동작이 지속되는 존재상태를 표시한다.

30)존현문동사구는 문말의 명사구와 먼저 결합하고, 다음 문두 처소(시간)구에 대해 진술을 한다.

다섯째, 은현문에서는 순간동사에 추향표지를 부가하여, 출현의 의미를 표시하고, 지속동사에서는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표시한다. 또 은현문은 모두 동태적인 의미를 표시한다.

여섯째, 존현문동사는 크게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지속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문말 명사구가 행위자냐, 대상자냐, 결과자임에 따라 동사를 분류해 볼 수 있고, 정태와 동태로 동사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중국어 동사의 兼用性으로 인해, 본고에서 분류한 존현문동사도 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른 여러 기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시도한 존현문동사의 분류는 상태와 지속, 정태와 동태를 기준으로 행위자·대상자·결과자를 후치시키는 명사구 및 시태·추향표지를 하위기준으로 하였다.

존현문의 동사는 시태조사, 추향동사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존현문에서는 시태조사, 추향동사의 기능으로 인해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같으나, 이미 동사자체에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는 요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는 존현문의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의 특성을 통해 존현문의 특징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미흡하기 그지없다. 앞으로 존현문의 연구에 있어서 존현문동사에서 쓰이는 동사를 어휘별로 구분하여 그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본고에서 제외한 주빈어문제를 함께 토론하면, 존현문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 參考文獻 〉

- 孟琮等編,《動詞用法詞典》,上海辭書出版社,上海:1987
- 王力,《中國現代語法》上下冊,中華書局香港,香港:1979
-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商務印書館,北京:1984
- 劉月華等,《實用現代漢語語法》,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北京:1983
- 李臨定,《現代漢語動詞》,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1990
- ,《現代漢語句型》,商務印書館,北京:1986
- 崔承一,《現代漢語句型》,延邊大學出版社,延邊:1988
- 張志公主編,《現代漢語》上中下冊,人民教育出版社,北京,1984
- 湯廷池,〈國語的「有無句」與「存在句」〉,《國語語法研究論集》,學生書局,臺北:1985
- 攝文龍,〈存在和存在句的分類〉,《中國語文》,1989년 제2기
- 宋玉柱,〈隱現句〉,《語言研究論叢》,제4집 南開大學出版社,天津:1987
- 范方蓮,〈存在句〉,《中國語文》,1963년 제5기
- 鄧福南著,宋龍準譯,〈現代中國語 語法の 諸問題(三)〉,《中國語文學》제6집,嶺南中國語文學會,1983.6
- 張志公,《漢語語法常識》,新知識出版社,北京:1956
- 丁聲樹等著,《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北京,1979
- 呂冀平等著,《漢語的主語賓語問題》,中華書局,北京:1956
- 呂叔湘,朱德熙著,《語法修辭講話》,開明書局,北京:1952
- 뎀슨,《표준중국어문법》,한길사,1989
- 盧東善,《現代中國語動體에 관한 研究》,成均館大學校博士學位論文,1982
- 鄧守信,《A Semantic Study of Transitivity Relation i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75